

한국 수의과대학 학생의 동물에 대한 태도 및 동물진료 관련 윤리적 의사결정

천명선¹ · 김진석* · 이문한 · 류판동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게재승인 : 2009년 12월 09일)

Attitudes toward Animals and Decision Making on Veterinary Ethical Issues in Korean Veterinary Students

Myung-Sun Chun¹, Jin-Suk Kim*, Mun-Han Lee and Pan-Dong Ryu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Konkuk University, Seoul 143-701, Korea

Abstract : To examine the attitude of students toward animals and its relation to veterinary ethical decision making, 302 pre-veterinary and veterinary students of three national universities (Seoul, Chungbuk and Kyungsang National University) were requested to answer the Animal Attitude Scale Test, an indicator of one's pro-animal attitude.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the AAS scores was found with higher scores in females (female vs. male, 65.27 vs. 57.40; $p < 0.0001$). The students who have companion animals had higher AAS scores (62.55) than those who do not (58.03, $p < 0.0001$). However, years of study and experience with animal protection activities did not affect the AAS scor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ttitude toward animals and ethical decision making was found in the investigation with two cases of a veterinary ethical dilemma: the medical treatment of a cow in its last gestation stage with ocular squamous cell carcinoma and the euthanizing of a 12 year-old dog with urinary incontinence. The students tend to support for veterinarians to influence clients' decisions in treatment by using their power as medical professionals, even if doing so could partly damage the interests of the clients or patients. Th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AAS scores and veterinary ethical decision making were found in this study, which implies that the attitude toward animals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ajor factors in making ethical decisions in veterinary practice.

Key words : Attitude toward animals, veterinary students, ethical decision making.

서 론

수의사는 진료에 있어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고객(보호자)과 환자(동물)의 이해관계(interests)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런 직업적인 특성으로 인해 수의사는 종종 윤리적인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8). 수의사들이 직면하는 윤리적 상황들은 수의윤리학이라는 별도의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술적 수의윤리학(descriptive veterinary ethics)은 수의윤리적 이슈에 대한 수의사나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실제적인 관점을 조사하여 파악하는 수의윤리학의 갈래이다. 서술적 수의윤리학이 윤리규범을 규정하거나 연구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거나, 다수의 선택이 반드시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니다(14). 그러나 수의사는 그 직업군 스스로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윤리적 규제를 통해서만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의료전문직이다. 그러므로 수의사 집단에 있어 구성원의 윤리적 태도와 특정 이슈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는 것은 수의윤리 이슈를 분석하고 해결점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일이다. 더욱이 동물복지 및 공중보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수의윤리에 대한 수의사 집단 내부와 외부의 요구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서술적 수의윤리 분야의 연구는 수의윤리에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이런 학술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서술적 수의윤리 분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다만,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물 및 동물복지에 대한 태도, 도덕적 추론에 대해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몇 건의 조사가 이루어져 있다. 스웨덴 수의과대학 학생들은 의과대학생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채식주의자가 많으며 스스로를 동물권리 옹호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안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물의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2). 영국에서는 수의대 본과학생들(clinical years)은 예과학생들에

¹Corresponding author.
E-mail : jdchun@snu.ac.kr

비해 동물의 고통에 대해 둔감해진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여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7). 터키에서는 수의과대학 학생들과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연구에서의 동물이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했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동물이용에 부정적이었으며 교원의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경우 연구에서의 동물이용에 대한 동의도가 낮았다. 또한 설문 응답자들은 동물을 이용한 연구에 대해 경제적인 면에서는 동의하지만(50.9%) 윤리적으로는 동의하기 힘들다(70.2%)는 의견을 보였다(16). 그러나 수의과대학 학생이나 수의사의 동물에 대한 태도, 도덕성 등이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의윤리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아 수의과대학 학생이나 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서술적 수의윤리 분석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세계 각국에서 동물학대 금지나 동물복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물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각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수의사의 동물 진료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동물 진료에는 동물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수의사의 동물에 대한 태도는 동물보호단체나 일반 대중의 태도와 비교할 때 차이를 보인다. 동물과 관련된 직종이나 단체의 동물에 대한 태도를 동물학대, 동물이용, 동물복지, 동물권리, 동물해방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수의사 그룹의 태도는 동물이용부터 동물복지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다(6). 수의사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늘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따르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많은 경우 윤리적 의사결정은 수의사 개인의 판단에 맡겨진다. 그렇다면, 동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그 법적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태도(동물이용)와 강한 규제를 통해 동물의 복지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태도(동물복지)의 차이는 분명히 윤리적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수의사가 진료 상황에서 내리는 윤리적인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요소로서 각 개인의 동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AS (Animal Attitude Scale) 조사를 통해 한국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동물의 이용 및 복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분석하며, 동물에 대한 태도가 진료 시 윤리적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설문조사는 2008년 1학기 및 2학기에 걸쳐 서울대학교, 충북대학교, 경상대학교에서 총 302명의 수의예과 및 수의학 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강의시간을 이용하여 배포하고 작성이 끝난 후 회수하였고 모든 설문 문항에 답변한 설문지만을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성별, 나이, 학년, 장래진료(관심분야), 반려동물 유무, 동물보호단체 활동, 수의윤리 및 생명윤리 강의 수강 경험 등의 기초자료와

AAS (Animal Attitude Scale), 수의윤리 관련 이슈에 대한 중요도 평가, 수의윤리관련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수의윤리 교육에 대한 요구조사로 구성되었다.

Animal Attitude Scale (AAS)

Herzog 등이 개발한 AAS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있어 응답자의 동물친화적 태도(pro-animal attitude)를 평가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으며 크론바하 알파(Cronbach alpha) 값이 0.91로 신뢰성이 높은 방법이다(12). 동물 이용에 대한 20개의 질문에 5점 라이커트 반응 척도(5-point Likert scale)로, 5점 '전적으로 동의함'에서 1점 '절대 동의하지 않음'까지로 답하게 되며 일부의 질문은 역(reversed scale)으로 작성되었다. 총 20문항의 척도를 합쳐 내어 통계량(AAS Score)으로 사용한다. AAS 점수가 높을수록 동물중심적이며 동물친화적인 태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본 조사연구를 위해 AAS 문항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성별(gender), 학년(years of study), 관심분야(special interest in veterinary medicine), 반려동물 유무(Living with companion animals), 동물보호단체 활동(Experience with animal protection Activities), 수의윤리 및 생명윤리 강의 수강 경험(Classes on veterinary ethics or bioethics)에 따른 AAS의 통계적 차이는 SPSS v. 12.0을 사용해 Independent T-test, ANOVA (Analysis of Variance)로 분석하였다.

동물진료에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의 의사결정

산업동물과 반려동물 진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의 사례를 들고 이에 대해 각각 환자(동물), 고객(보호자), 수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윤리적 결정(decision)의 선택안을 각각의 윤리적 입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시했다(Table 1). 응답자들은 각각의 결정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라이커트 반응 척도로 표시하였다. 각 사례와 결정 안은 수의윤리학 교재(10)와 관련 논문(5)에서 선택하였으며 임상전문가의 검토와 수정을 거쳤다.

사례 1

농장에서 여러분은 임신말기의 암소가 안구 편평상피세포암(ocular squamous cell carcinoma)으로 인해 각결막염(keratoconjunctivitis), 안검경련(blepharospasm), 광선공포증(photophobia)을 보인다는 진단을 내렸다. 수의사로서 안구적출(enucleation)이나 즉시 도축할 것을 권고했으나, 농장주는 송아지가 태어나고 수유기가 지난 후에야 암소를 도축하기를 원하며 외과 수술에 대한 추가 비용 지출을 거부하고 있다(10).

사례 2

고객(보호자)이 12살 된 암컷 개를 안락사 시키기를 원한다. 환자는 요실금(urinary incontinence)으로 인해 집안의 가구와 카펫 등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6개월째 교정이 되지 않고 있다. 고객(보호자)은 곧 아기를 출산할 예정이라 위생상으로도 관리 상의 문제를 들어 다

Table 1. Decision Making for Two Clinical Cases

Case	Decision	
Case 1: A cow in last gestation with ocular squamous cell carcinoma	1	I will give no treatment for the Client's interest
	2	I will cure the animal against the client's will using legal pressure
	3	I will persuade the client into minimal treatment for the animal with veterinarian's authority
Case 2: 12 year-old dog with urinary incontinence	1	I will euthanize the animal for the client's interests
	2	I will persuade the client to apply a new technology despite possible pain to the animal
	3	I will refuse to euthanize the animal

Table 2. Differences in Animal Attitude Scale (AAS)

AAS*	Gender		Living with a companion animal	
	Female	Male	Yes	No
N	85	204	108	181
Mean	65.27	57.4	62.55	58.03
Standard Deviation	7.503	9.062	9.154	9.057
P-value	< 0.0001		< 0.0001	

*Chronbach alpha = 0.803

른 교정 방법을 더 시도해 보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개에게서 다른 질병의 증후는 보이지 않는다(5).

각 사례별로 주어진 윤리적 결정의 선택안에 대한 학교별, 성별, 학년, 관심분야, 반려동물 유무, 동물보호단체 활동, 수의윤리 및 생명윤리 강의 수강 경험 유무에 따른 통계적 차이와 AAS와의 상관관계를 SPSS v. 12.0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결 과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AAS 점수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p < 0.0001),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그룹이 키우지 않는 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001, Table 2). 그러나 동물보호단체 활동 여부, 수의윤리 교육 및 생명윤리 교육 여부는 AAS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학교 및 학년별 AAS의 차이는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한 후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수의과대학 학생들은 야생동물을 스포츠 목적으로 사냥하는 것(3.62 ± 1.166), 야생동물의 모피용 포획(3.54 ± 1.129), 산업동물의 밀집사육(3.47 ± 0.948) 등은 대체로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동물실험을 통한 과학연구의 불필요성(2.04 ± 0.821), 질병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동물실험의 불필요성(2.19 ± 0.890)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등 과학과 의학 연구를 위한 동물실험에 대해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경제적 이득보다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3.38 ± 0.958), 기본적으로 인간이 동물을 합부로 이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66 ± 1.056).

설문에 응답한 수의과대학 학생들은 진료 상의 윤리적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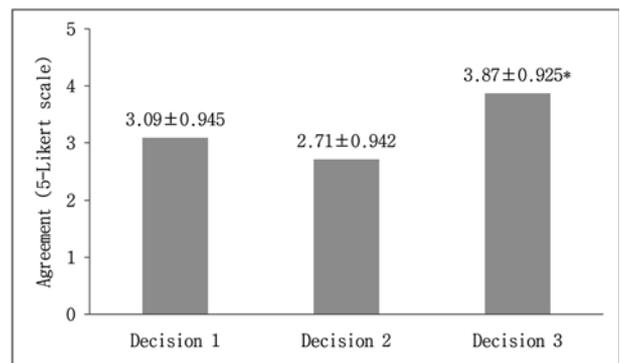


Fig 1. Agreement to the decisions in Case 1: A cow in last gestation with ocular squamous cell carcinoma. Decision 1: I will give no treatment for the Client's interest. Decision 2: I will cure the animal against the client's will using legal pressure. Decision 3: I will persuade the client into minimal treatment for the animal with veterinarian's authority. Agreement: 5-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Decision 1 and 2 (p < 0.001)

정에 수의사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안구 편평상피세포암을 앓고 있는 임신말기 암소의 경우 분만이나 태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고객(보호자)이 최소한의 통증치료를 하도록 설득한다는 결정을 가장 선호했다(Decision 3, 3.88 ± 0.925, p < 0.001). 그러나 법적 압력을 가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보다는 치료를 하지 않고 고객(보호자)의 금전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다(Fig 1). 요실금 문제로 인해 안락사를 원하는 개의 사례에서 수의과대학 학생들은 개를 안락사 시키거나 이를 거부하기 보다는 고객(보호자)과 환자에게 금전적 손실과 고통을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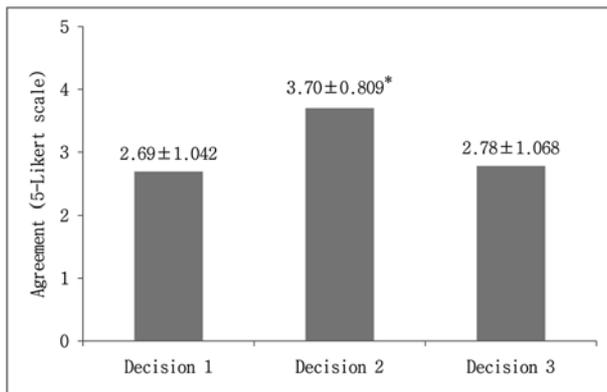


Fig 2. Agreement to the decisions in Case 2: A 12 year-old dog with urinary incontinence. Decision 1: I will euthanize the animal for the client's interests. Decision 2: I will persuade the client to apply a new technology despite possible pain to the animal. Decision 3: I will refuse to euthanize the animal. Agreement: 5-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Decision 1 and 3 ($p < 0.001$)

가능성이 있더라도 새로운 수술법에 의한 치료를 설득하는 결정을 선호했다(Decision 2 3.70 ± 0.809 , $p < 0.001$)(Fig 2).

진료 상의 윤리적 결정은 성별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은 두 사례 모두에서 고객(보호자)의 이익을 존중하여 암소를 치료를 하지 않거나(Decision 1, $p < 0.05$) 개를 안락사 시키는데(Decision 1, $p < 0.01$) 여학생보다 동의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여부에 따라서도 일부 차이를 보여 요실금이 걸린 개의 사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새로운 수술법을 도입하도록 설득하는데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p < 0.05$).

동물에 대한 태도(AAS)는 진료 상의 윤리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례 모두에서 고객(보호자)의 이익을 증시하는 결정(Decision 1)에 동의하는 정도는 AAS 점수와 음의 상관관계에 있어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는 각각 -0.385 와 -0.308 였다. 반면, 첫번째 사례에서 환자의 이익을 가장 우선 시한 결정(Decision 2)은 AAS 점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피어슨 상관계수는 0.216 이었다($p < 0.01$).

고 찰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수행된 수의과대학 학생의 동물에 대한 태도 및 이 태도가 수의윤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동물친화적인 태도의 지표가 되는 AAS 점수는 남학생이 57.4 ± 9.062 여학생이 65.27 ± 7.503 으로 해외의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낮았으며(1, 13)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AAS 점수는

호주의 일반 성인과 비교할 때 남학생의 경우는 1차 산업 종사자와 유사하다. 일반 성인의 동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호주의 한 연구에서 AAS 점수가 성별과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보고 된바 있다(13). 여성의 AAS 점수가 남성보다 높았으며(여성 평균 69.5, 남성 평균 63.8), 직업적으로 볼 때, 농업, 축산업 등 1차 산업 종사자(57.7)와 건설업, 운송, 기계 관련 제조업 종사자들(62.8)의 경우 AAS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낮았다. 의료직 종사자들이 가장 높은 AAS 점수(69.6)를 보였고 과학자들의 AAS는 상대적으로 낮았다(64.4). 그러나 이 결과가 단순히 한국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물친화적인 태도가 호주 성인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국 수의과대학 학생들은 동물을 이용한 의학 및 과학 연구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민에 의한 동물보호 활동이 활발한 호주의 특성과 수의학 분야에서 기초 생명과학분야의 연구가 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룹의 AAS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호주의 설문조사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응답자가 77%에 달했고 본 설문지에서는 38%로 낮았기 때문에 총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AAS를 통해 보여지는 의식적인 태도가 표본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하며 이 결과가 행동에 반영되는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 문화권인 중국에서 외국어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을 때 응답자들의 AAS 평균 점수는 73점으로 호주의 결과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1). 최근 보고되고 있는 중국의 동물학대 사례는 일부에서 자행되는 행위임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예상 밖의 결과인데 동물학대에 대한 서구의 비판에 노출이 빈번할 수 있는 외국어 대학생들이 테스트에서 의도적으로 강한 동물친화적인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기존의 조사 연구에서 여성은 동물에 대해 강한친화적 태도를 보이며 동물 보호 활동 참여에 적극적이고 키우는 반려동물의 수가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던 반면, 남성은 사냥이나 동물을 이용한 실험 등에 여성에 비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3). 본 조사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AAS 점수가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수의윤리적 의사결정 사례에서도 환자인 동물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여학생에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문화사회학적으로 여성이 동물에 대해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접근을 하며, 배려(care)에 입각한 윤리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지만(4), 이것이 수의윤리학에서 특수한 상황을 야기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해외 수의과대학에서나 여성의 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국내 수의과대학의 현실로 볼 때 수의윤리적 이슈를 다루는 태도나 수의사 그룹의 의사결정에 여성의 동물친화적 태도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

본 조사 연구에서 예과생과 본과생 사이의 동물친화적 태도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수의과대학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오히려 동물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더욱 둔감해진다는 기존의 조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동물에 대한 태도와 수의과대학생의 윤리의식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연구에서 수의과대학의 교육 경험이 도덕적 추론(moral reasoning)의 성장을 오히려 억제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11). 수의과대학 4년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도덕적 추론의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제한된 표본 수와 수의윤리적 관점과 관련이 없는 문항들로 이루어진 조사 결과가 수의과대학의 교육이 학생들의 도덕적 추론 발달을 방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될 수 없다(14). 다만, 미흡한 수의과대학의 윤리 지침 및 윤리 교육이 학생들의 도덕적 추론 능력의 발달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 연구에서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물에 대한 태도와 수의윤리적인 의사결정 사이의 관계에 통계적 연관성이 있음이 관찰되었다. 응답자의 동물친화적 태도는 의사결정에서 동물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경향과 관련성을 나타냈다. 본 조사연구에서 제시된 사례에 대해 윤리적 의사결정은 각각의 이해당사자들 중 한쪽에 무게를 두어 세 가지 안으로 구성하였고 응답자들은 이 결정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하였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고객(보호자)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남학생들의 AAS 점수가 낮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주인이 안락사를 원하고 있는 요실금에 걸린 개의 진료에서 AAS 점수와 동물의 이익을 우선시 하려는 태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동물친화적인 태도가 수의사의 진료에 있어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를 통해 진료 대상 동물이 반려동물일 때 동물친화적인 태도가 더욱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할 수 있으나 반려동물과 산업동물을 구분한 동물친화도 조사에서 오히려 AAS 점수는 산업동물에 대한 동물친화적 태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선행 연구를 볼 때 이를 단정짓기는 힘들다(15). 또한, 두 사례 모두에서 동물친화적 태도를 나타내는 AAS 점수와 고객(보호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태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AAS 점수가 낮은 응답자일수록 고객(보호자)의 이익을 우선 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의료 전문가로서 수의사는 진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고찰을 필요로 한다(5). 게다가 수의사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은 법적이나 윤리적으로 명백한 답을 찾을 수 있기보다는 환자와 고객(보호자), 수의사 스스로의 이익이 상충되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이 과정에서 수의사는 수의사 단체의 윤리강령을 참고하고 법적인 기준에 의거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윤리적 결정은 수의사 개인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그러므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수의사는 이익이 상충되는 모든 대상의 상황을 검토하고 윤리적 원칙에 맞추어 가능한 한 이해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편, 응답자인 수의과대학생들은 두 사례에서 모두 수의사가 적극적으로 고객(보호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러나 법 제도나 수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압력으로 행사하여 고객(보호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환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시험적 방법도 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의학지식이 부족한 고객(보호자)에게 있어 수의사가 의료적 결정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고객(보호자)은 스스로 진료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데 이는 의료 전문직에 존재하는 권위(Aesculapian authority)로부터 비롯된다(9).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지위를 확보하면서 동물진료에서는 소아과 진료에서와 유사한 윤리적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 따라서 수의사는 고객(보호자)과의 상담에서 권위를 내세워 진료를 강요하지 않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나 연구는 매우 미흡하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본 조사연구는 실제 임상진료 및 병원 운영의 경험이 없는 수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기 힘든 반면, 오히려 학생들이 세운 수의윤리에 대한 이상적인 기준(ideal standard)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단편적인 사례와 이에 대한 선택형 문항을 통해 응답자의 윤리적 결정을 분석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인터뷰와 사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수의사가 가지는 직업적 특성, 수의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결 론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물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 3개 수의과대학의 예과와 본과생을 대상으로 동물친화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AAS (Animal Attitude Scale) 테스트를 수행했다. 설문분석 결과 여학생들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학생그룹이 강한 동물친화적 태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여성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룹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였던 유럽과 호주의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했으나 AAS 총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동물을 이용한 생명공학 연구가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수의과대학 연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상황과 동물과 고객(보호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는 수의사의 윤리적 위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제 사례를 이용한 수의윤리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해 고객(보호자)의 이익을 우선 시 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AAS 점수가 높은 학생일수록 환자인 동물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동물친화적인 태도가 동물진료 시 윤리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수의

윤리 연구에서 기초가 되는 서술적 수의윤리 방법을 적용한 조사연구로, 이 분야에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감사의 글

설문문항에 대한 자문과 설문조사에 도움을 주신 경상대 수의과대학 이후장 교수님과 서울대 수의과대학 김완희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대학교육과정개발 연구지원 사업(KRF-2008-562-E00005)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1. Davey G. Chinese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ethical treatment and welfare of animals. *J Appl Anim Welf Sci* 2006; 9: 289-297.
2. Hagelin J, Hau J, Carlsson HE. Attitude of Swedish veterinary and medical students to animal experimentation. *Vet Rec* 2000; 146: 757-60.
3. Herzog HA. Gender differences in human-animal interactions: a review. *Anthrozoos* 2007; 20: 7-21.
4. Kellert SR, Berry JK. Attitudes, knowledge, and behaviors toward wildlife as affected by gender. *Wildlife Society Bulletin* 1987; 15: 363-371.
5. Mullan S, Main D. Principles of ethical decision-making in veterinary practice. *In practice* 2001; 23: 394-401.
6. Orlans FB. *In the name of sc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20-34.
7. Paul ES, Podberscek AL. Veterinary education and students' attitudes towards animal welfare. *Vet Rec* 2000; 146: 269-272.
8. Rollin BE. Veterinary ethics and animal welfare. *J Am Anim Hosp Assoc* 2000; 36: 477-479.
9. Rollin BE. The use and abuse of Aesculapian authority in veterinary medicine. *J Am Vet Med Assoc* 2002; 220: 1144-1149.
10. Rollin BE. *An introduction to veterinary medical ethics: theory and cases* 2nd ed. Ames; Blackwell Pub. 2006: 106-107.
11. Self DJ, Scharder DE, Baldwin DC, Root SK, Wolinsky FD, Shaddock JA. Study of the influence of veterinary medical education on the moral development of veterinary students. *J Am Vet Med Assoc* 2002; 220: 782-787.
12. Signal TD, Taylor N. Attitudes to animals in the animal protection community compared to a normative community sample. *Society & Animals* 2006; 14: 265-274.
13. Signal TD, Taylor N. Attitudes to animals: demographics within a community sample. *Society & Animals* 2006; 14: 147-158.
14. Tannenbaum J. *Veterinary ethics*. St.Louis; Mosby. 1995: 44-59.
15. Taylor N, Signal TD. Pet, pest, profit: isolating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s the treatment of animals. *Anthrozoos* 2009; 22: 129-135.
16. Yerlikaya H, Ozen A, Yasar A, Armutak A, Ozturk R, Bayrak S, Gezman A, Seker I. A survey of attitudes of Turkish veterinary students and educators about animal use in research. *Vet Med Czech* 2004; 49: 413-420.